

# 국제 사료곡물 가격폭등과 우리가 할 일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의 폭등과 주요 곡창지대의 냉해, 가뭄 등은 사료곡물을 위주로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업체와 그를 이용하는 축산업계에 암울한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요 축산물의 생산가격이 경쟁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료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 이 물음에 확고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만의 슬픔일까?

이러한 일련의 물음에 우리는 궁색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세계 곡물시장의 형성과 이에 따른 축산업의 역동적 추이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WTO 체제의 출범과 각종 생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세계적 단일시장화 움직임이 정착되면서 이제 특정 생산물에 대한 특정 국가내의 독자적 시장형성이나 이익추구 움직임은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향후 사료곡물의 가격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세계의 특정장소에서 발생한 천연재해나 기타 정치·사회적 가격변동요인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오상집 교수**  
(강원대 사료생산공학과)

이러한 측면에서 작금의 곡물가 폭등을 세계 곡물재고량의 하락과 일시적 기상재해 또는 WTO 체제의 전면가동을 위한 격동기의 일과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 만은 없는 고민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현재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에 대한 단편적인 미봉책만으로는 향후 유사한 어려움에 또다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음을 뜻하므로 항구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축산체계가 축산에 임하는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축산의 목표를 축산물의 안정공급이나 국내 양축가의 소득증대와 같은 국내 일변적인 관점에 두고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계 축산 또는 농업의 상호 교호적 공동발전이라는 큰 테두리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농업의 세계화를 의미하는데 농업이 가지는 토지 종속적 개념이나 국가별 식량자급이라는 비교역적 개념 일변도의 수구적 농업개념을 근본적으로 탈피하여야 함을 뜻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농업에 관한 제도나 정책적 뒷받침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우선 농업 관련 종사자들만이라도 농업의 세계화에 정서적으로라도 적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일부 축산업 분야의 경우 사육방법 및 규모, 사료수급, 사육품종 및 육종, 시설 및 관리,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 전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세계 상위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고 운영할 주체나 체계는 아직도 국내만으로 제한된 의식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축산이 아직도 국가의 지원책(domestic intervention)이나 특정한 종류의 교역보호책(border measures)에 주로 의존하는 수준을 시급히 탈피하여 세계 단일시장에서 더불어 공생하는 지혜와 방법을 하루 빨리 체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과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국내 배합사료 산업이나 축산업이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추구나 경쟁으로 인한 경쟁력의 소진을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국가별 또는 권역별 축산체계와 합리화 움직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작금의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명쾌한 대비책은 더이상 국가정책이나 교역보호 차원에서 도출될 수 없다고 하겠다. 물론 정책적으로 일시적인 미봉책이 도출될 수 있으나 이는 향후 우리 축산분야 전 산업의 세계화 움직임에 대비한 경쟁력의 능동적 자생을 저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배합사료 가격의 불필요한 상승요인들인 사료공장의 백화점식생산체계나 전문화 미 정착, 판매유통체계의 비 정상적 운영, 과당경쟁, 비 계획적 생산체계, 물류관리나 수송저장체계의 후진성, 인력관리의 전근대성 등이 선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곡물가격 폭등요인 앞에 또다시 전전공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료업계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결국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의 차원에서 공동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론 이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난제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개별 경쟁에서 자신만이 생존하겠다는 논리로 대처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사료산업 및 축산관련산업의 규모나 변화에 대한 적응속도를 살펴볼 때 위험부담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전 배합사료 산업이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노력하여야 장기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의 형성체계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구매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으며 또한 부존자원 및 해외 자원의 개발에 국가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인 장기 구매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배합사료 산업 및 축산관련 산업분야 주체의 의식전환이 국제 곡물의 폭등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대책의 선결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의 공조체계가 하루빨리 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